

가까운 글씨 잘 안보이면 '노안'...시아 뿌옇게 흐려지면 '백내장'



나의 건강 묻고 답하다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

〈상〉 노안·백내장

광주일보가 100세 시대를 맞아 남녀노소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학정보를 독자들이 알기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고자 의료인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진의 일문일답 영상을 제작해 기사와 함께 게재하며, 광주일보 유튜브에서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 노안 (Presbyopia)

-노안은 정확히 어떤 변화로 생기며,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눈에는 빛을 굴절시켜 상을 맺게 해주는 렌즈 역할의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있다. 수정체는 원래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쉽게 모양을 바꾸어 먼 거리에 있는 물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 모두를 잘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고 주변 근육도 약해지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책이나 스마트폰 같은 가까운 글씨가 흐리게 보여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생긴다. 보통 노안은 40대 초·중반부터 시작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30대 후반 늦으면 50대 이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단순한 시력 저하 또는 근시, 원시와 노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근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가까운 글씨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인 간판·신호등·철판 글씨 등이 흐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방치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

노화, 점안액 치료·인공수정체 삽입술·라식으로 교정

백내장,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 불편 크다면 수술해야

보인다. 그러나 근시가 있는 사람도 노안이 올 수 있는데, 기존의 안경을 쓰면 안보이던 스마트폰의 글씨가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는 경우이다.

원시나 물체의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된다. 젊었을 때 수정체의 탄력이 좋다면 우리 몸의 조절기전을 통해 상을 망막에 맺히게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노안이 되면 조절력이 손실되어 증상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엔 가까운 거리도 흐릿하게 보일 뿐 아니라 먼 거리까지도 흐려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원시의 경우 노안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일찍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정도도 훨씬 심하다.

백내장 혹은 녹내장 등에 의한 기질적인 시력저하는 거리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침침하게 보이게 된다. 하지만 노안 때문에도 거리에 관계없이 시력 감소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감이 발생하면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전문의의 소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노안은 안경 쓰는 것 외에 수술이나 치료로도 개선할 수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경우에 적합한가.

▲현재 안경 쓰는 것 외에 노안 교정법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점안액 치료이다. 작은 구멍을 통해 보면 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원리를 응용해 동공을 축소시키는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노안의 경우 근거리 작업이 필요할 때에만 잠깐 사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크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요즘 많이 받는 라식·라섹 수술을 이용해서도 교정을 해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한 쪽 눈의 초점을 멀리, 다른 쪽 눈은 가까이에 두어 수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양안 시력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적용이 필요



윤경철 교수

하며, 정밀 작업이나 운전 등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부적합하다. 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있다. 기존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이른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야간의 빛 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프레시비맥스 라식(PresbyMAX LASIK) 등의 새로운 노안 교정기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전문의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치료법과 그 부작용 및 한계점 등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백내장(Cataract)

-백내장은 왜 생기며, 노화 외에 주된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백내장은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투명해야 할 렌즈가 뿌옇게 변화되는 질병이다. 백내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노화이지만,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백내장 발생 확률이 60% 이상 높고 더 일찍 생길 수 있다. 야외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는 직업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어 백내장 발생률이 증가하며, 포도막염 등의 안염증질환이나 천식, 피부질환,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 점안제, 경구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외에도 흡연, 눈에 외상을 입었던 적이 있던 경우, 고도근시, 가족력, 방사선 노출력 등도 백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백내장을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 노안 체크리스트

1	신문·책·휴대폰 글씨를 예전보다 멀리 떨어져야 잘 보인다.
2	어두운 곳에서 작은 글씨가 특히 잘 안 보인다.
3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생긴다.
4	근거리와 원거리를 번갈아 볼 때 초점 전환이 느리다.
5	오후·저녁이 되면 가까운 글씨가 더 흐릿하게 느껴진다.
6	글씨가 흐릿해 보여 무의식적으로 눈을 찌푸리게 된다.
7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는 일이 잦아졌다.

▲백내장 수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불편을 느끼는가'이다. 백내장이라도 교정시력이 0.6 이상으로 유지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 또 안염증질환이 평소 있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도 수술 후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글을 읽거나 운전·보행 등의 활동에 불편함이 있거나 시력이 너무 감소한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하게 된다. 만일 수술을 계속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수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거나 녹내장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수술은 안전한 편인가. 수술 후 시력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

▲현재 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연간 60만건 이상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성도 검증된 수술이다. 수술 후 시력은 수술 이전의 눈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백내장 외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0.9~1.0의 시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의 질환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호전의 한계가 있다. 수술 후 몇 달 내 일시적인 염증이 안압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내방은 대로 안과에 잘 다녀야 한다. 또한 수 개월에서 수 년 이후 시력이 감소하는 후안혼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레이저 시

■ 백내장 체크리스트

1	안경을 바꿔도 시력이 잘 맞지 않는다.
2	밝은 햇빛이나 조명 아래서 눈이 유난히 부시다.
3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이나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인다.
4	사물이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
5	색깔이 예전보다 누렇게 보이거나 흐릿해졌다.
6	한쪽 눈을 가리면 시야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7	책이나 TV를 볼 때 눈이 쉽게 피로하고 초점이 잘 흐트러진다.

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에 대해 설명한다면

▲백내장 수술 땀 눈에 반드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 수정체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로 구분된다. 단초점 렌즈는 물체의 선명함이 유지돼 수술 후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써야하는 단점이 있다. 다초점 렌즈는 돋보기 형태의 렌즈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 먼 곳, 가까운 곳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난시가 심한 경우에 쓰이는 난시 교정용 인공 수정체가 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백내장 수술 후 30~5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더 편하게 보기를 원하는 경우에 권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렌즈의 재질과 디자인이 많이 개선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혹시 다초점 인공 수정체의 부작용은 있는가.

▲부작용이 있다. 물체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빛 번짐이 조금 생긴다. 이에 따라 성격이 예민하거나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경우, 황반변성·녹내장 환자,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다초점 렌즈를 권하지 않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인터뷰 영상은 광주일보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피부건강 증진·필수의료 살리는데 최선”

이지범 대한피부과학회장 인터뷰

공공사업 필요한 피부질환 대응 AI·재생의학·디지털 헬스 시대 역량 갖춘 전문의 발굴에 집중

“정부·제약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공공사업이 필요한 피부질환을 선정해 국민의 피부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한피부과학회장에 새로 취임한 이지범 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앞으로 2년간 학회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신임 회장은 현재 매년 70명씩 배출하는 전문의 수를 9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추계학술대회도 국제학술대회로 격상시켜 대한피부과학회를 세계적 학회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박사를 취득한 이지범 회장은 대한의진학회·여드름주사학회 회장·피부과과학회 부회장 등 다수의 학회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더모스코피 검사’ 신의료 기술 인정과 ‘유 퇴치 국민건강사업’ 참여 등으로 학문·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 서왔다.

다음은 이지범 회장과 의문일답 내용이다.

-제63대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의과 전남대대학 교병원 피부과교실 의국원과 동문들에게 명예를 안겨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피부과 전문의들의 고민과 요구는 무엇이었나.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 분야를 모두 잘 다루는 의료 전문의이다. 하지만 피부과가 피부질환을 잘 보지 않고 피부미용 기술만을 하는 전문가 이미지가 의료 현장과 현실에서 비추지고 오해를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가 크다. 또한 수가문제도 인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방하고 피부 영역을 진료 및 시술하는 의료인들이 늘고 있어 국민들에게 진료의 혼



이지범 회장

동이 있음이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의지만이 아니고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협력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고 격정없이 각 담당의료분야를 진료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수가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비전으로 ‘회원 소통과 신뢰 강화’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대한피부과학회는 2600명 이상의 피부과 전문의와 전공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의학단체이다. 따라서 회원간의 신뢰를 위해 우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술대회, 유튜브, 학술지, 간행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부과 관련 최신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회원들이 국민 피부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학회와 임원들이 앞장 설 계획이다.

-임기 동안 학술·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피부과학회는 전국에 11개 지부회와 15개 산하 학회가 있다. 임기 2년 동안 매년 개최하는 추계학술대회를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 격상시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피부과 학회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전문의 및 전공의 연수교육을 서울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피부과 회원들에게 어려움 없이 최신 지식과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현재 매년 피부과 전문의 배출은 약 70명으로 인구대비 피부과 전문의 숫자가 적어 전국민의 피부질환을 충분히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10여년 이전처럼 최소한 매년 90명 이상의 전문의 배출이 필요하기에 전문의 숫자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법 등을 제

정하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협조 요청과 이해를 구하여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음 국민퇴직 운동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피부과학회가 공공의료 영역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한피부과학회는 매년 피부건강의 날을 지정하여 특정 주제로 피부 관련 국민 건강의 실문조사와 언론 홍보를 해왔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성 피부질환인 옴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공사업이 필요한 피부질환을 선정하여 정부와 제약사의 협조를 받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로 인한 피부암 등 노화 관련 피부질환 증가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는데 이를 위한 학회의 학술·정책적 전략은 무엇인가.

▲고령화로 인해 피부암 등 노화 피부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피부노화와 피부암의 주된 요인으로 자외선 노출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자외선지수(UV Index)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선크림(sunscreen) 사용의 필요성과 피부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AI·재생의학 등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회장으로서 대한피부과학회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갈 계획인가.

▲AI·재생의학·디지털 헬스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피부과 전문의의 경쟁력은 기술을 대체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성과 통합적 판단력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AI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AI 결과를 임상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데이터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만성 염증성 질환(아토피, 건선, 주사, 만성 두드러기), 피부 장벽·마이크로바이옴, 희귀·복합 피부질환을 감별진단해 치료를 설계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키워나가고 싶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호남지역 최단기간 기록 경신

광주기독병원이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 이후 호남지역 의료기관 중 최단 기간 내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하며, 지역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 광주기독병원은 2021년 2월 광주 지역 최초로 최첨단 4세대 수술용 로봇 ‘다빈치Xi’를 도입했으며, 같은 해 2월4일 산부인과 구진영 과장이 ‘로봇 보조 복강경 근조절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첫 로봇수술을 시작했다. 이후 수술 건수는 빠르게 증가해 2022년 1월 100례, 2024년 4월 500례를 넘어섰고, 2025년 12월 마침내 1000례를 돌파했다.

광주기독병원은 도입 초기부터 전문 의료진 확보, 해외 연수, 수술 표준화 체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뇨의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복강경 수술의 한계를 넘어 고난도 암수술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로봇수술은 3차원 고해상도 시야와 정밀한 로봇 팔 조작을 통해 출혈을 줄이고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

하는 최소침습 수술로,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낮아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1000례 달성을 기념해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감사예식’을 개최하고, 의료진과 직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은 “이번 로봇수술 1000례 달성은 단순한 누적 건수를 넘어, 지역 의료기관도 고난도 정밀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외과와 정형외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고난도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 로봇수술센터장은 “2021년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안전성과 숙련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1000례는 의료진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결과이자, 산부인과와 마취과, 간호부 등 여러 진료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함께해 준 모든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 20년만에 누적 기부금 154억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 누적액이 150억원을 돌파한 15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발전후원회 창립 이후 20년만에 달성한 뜻깊은 성과이다.

기부금은 창립 이후 연평균 5억원 수준에서 지난 2021년 1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9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성과는 전남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병원 운영에 대한 신뢰가 후원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그간 기부금은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과 연구·교

육·시설 확충 등에 39억원 정도 사용됐으며, 잔여 기부액은 115억원이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발전후원회의 눈부신 성장은 전남대병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성과”라며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바탕으로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연구·교육과 첨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해 미래 의료의 가치를 창출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